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 되살리려면…

대형아파트 규제 더 풀고 분양가상한제 역기능 막아야

'광주·전남 주택시장 활성화 지원협의회' 제기

광주·전남의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선 세제·금융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는 부동산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부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조성인 (재)21세기 경제연구소 대표는 17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리는 '광주·전남지역 주택시장활성화 지원협의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광주·전남의 미분양주택은 1만2천125가구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2천644가구에 달할 만큼 미분양 적체로 인한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 대표는 지역 주택시장이 이같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거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적체 등 현재의 시장침체 요인이 투자가치 하락이 아닌 각종 부동산정책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최근 2~3년새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이 잇따르면서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광주는 올 들어 4월까지 1만2천681가구의 주택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764가구) 늘어나는 등 거래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만1천696가구가 거래돼 22.4%(2천137가구)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소형주택의 거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중대형주택 거래는 되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우선 중대형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갈아타기' 등 주거의 상·하 이동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 향후 지방 주택 수요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대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이후 값싼 주택 공급에 실패할 경우 미분양 증가와 주택공급 부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지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인근 단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광주·전남 수요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선 지방 미분양 대책 등에 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주·전남의 전세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것도 주택의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농협 임직원·주부모임 회원 70여명

배농가 찾아 '배봉지 씌우기' 작업 도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 임직원과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광주시지회(회장 박묘님) 회원 70여명은 16일 광주시 평동 용곡마을 배 재배농가를 찾아 '배봉지 씌우기' 작업을 도왔다.〈사진〉

신성수 광주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손돕기를 매년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일손돕기 횟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본부는 '일손돕기 알선창구'를 만들어 지원자나 단체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연결해주고 있다. 문의 농협광주본부 지도경제팀 (062)603-6522.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 '순금매취 10년산' OECD 만찬 식탁 오른다

47국 IT장관회의 공식 만찬주 선정

보해양조의 '순금매취 10년산〈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다. OECD 장관회의는 47개국 IT장관과 인터넷 분야 글로벌 리더 등 2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7~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공식 만찬주로는 보해 '순금매취 10년산'을 비롯해 경주법주 '화랑', 배상면주가 '산사춘' 등 3개가, 공식 건배주로는 국순당의 '강장백세주'가 선정됐다.

'순금매취 10년산'은 10년 숙성 매실주 원액에 순도 99.9%의 순금가루를 브랜딩한 고품격 매실주로, 세계 각국의 애주가들에게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에 따르면 순금가루는 신경안정, 해독, 피부정화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장과 위에 좋은 매실과는 최고의 조화를 이룬다.

OECD 장관회의 만찬주로 사용될 보해 '순금매취 10년산'은 알코올 함량 25%로 용량은 500㎖.

한편 보해 복분자주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2006년 ANOC 총회(국무총리 주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의 만찬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보해 '매취(매실주)'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당시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 정상들의 한국 방문기념 선물용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불 등 '산단 클러스터' 12곳 올해 800억 지원키로

정부가 올해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으로 주요 산업단지 12곳에 79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단지별로 지원되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특성화사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717억원이 배정돼 클러스터로 지정된 12개 단지는 각각 60억원 안팎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올해 새로 지원되는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에는 56억원이 배정됐고 e-클러스터 구축과 해외 클러스터 교류 등의 공동사업에도 25억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이란 생산기능 중심 산업단지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4월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광주,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단지 등 7곳과 신규로 지정된 전남 대불, 인천 남동, 부산 명지녹산, 대구성서, 충북 오창 등 5곳 등 모두 12곳이다.

/연합뉴스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용주)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한다.

용도는 저장, 처리, 가공시설의 신축, 증설·축, 개보수와 물류장비 구입비용으로 대출한도는 10억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4.0%(농업인, 생산자단체 연 3.0%)이며 대출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은 오는 2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aT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062-940-7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산업기능요원 희망 업체 신청하세요

광주·전남중기청 30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9개 기관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09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산학협력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꾸준히 해온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35→45점) 분야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고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평가배점(10점)을 신설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해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5월 현재 전국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2만8천여명이 6천740여개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신규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선정결과는 각각 오는 10월15일, 11월15일 이후 해당 지정업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기존 업체의 인원배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 : // gj.smba.go.kr)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새얼굴

"금융회사 건전성 개선 검사 강화"

조 기 인 금감원 광주지원장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임 광주지원장에 조기인(51) 금감원 보험검사 1국 부국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조 지원장은 나주 출신으로 광주일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2년 한국보험공사에 입사한 뒤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장, 보험검사 1국 검사기획팀장 등을 거쳤다.

조 지원장은 "지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개선을 위해 경영지도 위주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수상 전 지원장은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장수만 조달청장 來光

장수만 조달청장은 17일 광주지방조달청을 방문해 나영주 광주지방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조달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 등을 점검한다.